80주년 법화종, 대도약으로 새 100년 연다

6월 28일 통영 안정사서 기념법회
종정 암현 스님 새로운 100년 기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 “성역화 추진”

통영=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법화종은 6월 28일 총본산 통영 안정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6월 28일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원-국태민안·국민대화합 대법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종정 암현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보명 스님, 총무원장 관효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림 스님 등 법화종 주요 스님과 한국불교계 주요 종단 대표, 사부대중이 참석해 창종 80주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암현 스님 “참회 없는 기념은 공허”

종정 벽산당 암현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창종 80주년의 의미를 회향과 발원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100년은 참회와 발심 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현 스님은 “오늘의 법석은 지난 역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덕은 찬탄하고 허물은 함께 참회하는 자리여야 한다. 참회 없는 기념은 공허하고 발심 없는 축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설했다.

이어 미래 100년을 향한 세 가지 원력을 제시했다. 암현 스님은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는 종단, 불자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며 삶의 의지처가 되는 종단, 나라의 안정과 국민대화합에 이바지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며 “수행과 전법, 자비행을 통해 일승묘법의 등불을 더욱 밝히자”고 당부했다.

관효 스님 “화합 · 투명행정”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종단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교구 발전과 대중 화합에 기여한 스님 9명에게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오른쪽)이 통영시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관효 스님은 △승가공동체의 화합과 종헌·종법 질서 확립 △투명하고 안정적인 종무행정 구축 △총본산 안정사를 수행·포교·교육·문화 중심도량으로 성역화하는 ‘3대 원력’을 선포했다.

관효 스님은 “선대 조사 스님들의 원력을 계승해 신뢰받는 종단, 국민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며 “창종 80주년을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종단의 중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불교계 “법화종 새 도약 기대”

원로의장 보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창종 80주년을 계기로 더욱 여법한 승가공동체를 이루고 후학들에게 수행과 전법의 길을 바르게 전하는 종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림 스님도 “종단의 화합과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해 중앙종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사경은 단순히 경전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고 불성을 일깨우는 수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화종 사부대중의 원력이 국민 평안과 사회대화합이라는 큰 원력으로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축사를 통해 “대한불교법화종은 지난 80년 동안 묘법연화경의 일승묘법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발전과 대중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창종 80주년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원력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 대각종 총무부장 원광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법성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정토종 총무원장 보문 스님, 법연종 총무원장 성오 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금륜 스님, 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삼론종 총무부장 도광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대표들과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법화종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축원했다.

자비나눔 · 시상으로 창종 의미 회향

창종 80주년의 의미를 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도 이어졌다. 기탁식에서는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통영시에 자비나눔 쌀 1000kg을 전달하며 창종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눴다.

이어 열린 창종 8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는 종단 발전과 교구 화합, 수행과 포교에 헌신한 스님과 신도들에게 종정 표창과 총무원장 표창, 감사패가 수여됐다.

종정 암현 스님은 종단 발전과 종무행정에 기여한 총무부장 현묵 스님과 종단의 법률 자문 및 제도 정비에 힘써온 김형남 변호사에게 종정 표창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교구 발전과 대중 화합에 기여한 김해교구 불국사 주지 서암 스님, 강원교구 법상사 주지 법미 스님, 경북교구 대룡사 주지 지원 스님, 경주교구 보광사 주지 보관 스님, 부산교구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 부산교구 극음사 주지 성림 스님, 직할교구 약수암 주지 혜주 스님, 직할교구 법흥사 주지 덕인 스님, 충북교구 부흥사 주지 수행 스님 등 9명에게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종단 발전과 사찰 운영, 신행활성화에 기여한 23명의 신도와 종무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미래비전 선언과 사경집 이운 및 봉안의식이 엄숙하게 봉행됐다. 사부대중이 창종 80주년을 기념해 정성껏 필사한 사경집을 ‘나무묘법연화경’ 염송 속에 봉안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올여름, 사찰에서 쉬어볼까

문화사업단, 7~8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

어린이 · 청소년 · 가족형부터
청춘 위한 힐링, 레저, 수행 등
여름 맞춤형 프로그램 ‘눈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여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여름 맞춤형 템플스테이가 찾아온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50여 개의 사찰에서 60여 개의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는 무더운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사찰별 특색과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려 구성됐으며, 어린이와 가족, 청년, 일반 참가자 등 여러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템플스테이는 △피서·레저형 △어린이·청소년·가족 체험형 △청춘 힐링형 △명상·수행형 △지역·이색문화 체험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체험 중심 프로그램부터 조용한 휴식과 명상 프로그램까지 선택할 수 있다.

피서·레저형 프로그램은 여름철 산과 계곡, 바다 등을 활용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낙산사는 서핑 강습과 파도명상 등을 결합한 서핑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쌍계사는 섬진강 래프팅과 산사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약천사 요트체험, 관음사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해 백담사와 문수암, 선운사 등의 물놀이 프로그램 등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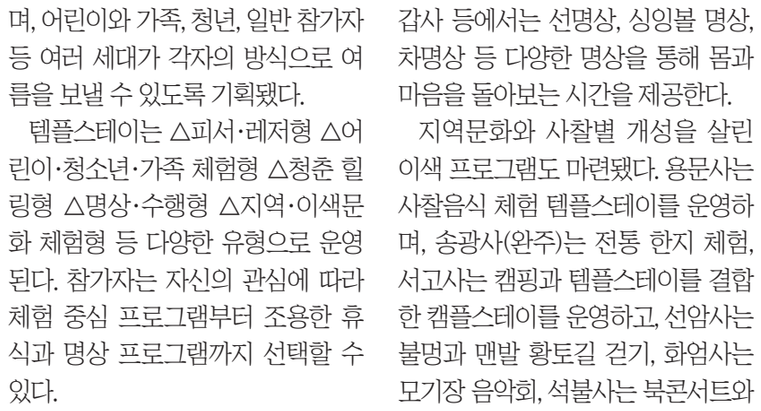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참가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마곡사, 통도사, 내원정사, 무각사 등에서는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와 산사 캠프를 운영하며, 법주사, 은해사, 내소사, 대흥사 등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명상·수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용흥사와 대원사는 20대와 대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용연사와 관음사 등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연 속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명상·수행형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의 본질적인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송광사에서는 좌선, 행선, 와선 등을 진행하며, 청량사는 계정혜를 주제로 한 수행프로그램을, 용화사, 붓다선원, 국제선센터, 도갑사 등에서는 선명상, 싱잉볼 명상, 차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지역문화와 사찰별 개성을 살린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용문사는 사찰음식 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송광사(완주)는 전통 한지 체험, 서고사는 캠핑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캠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선암사는 불멍과 맨발 황토길 걷기, 화엄사는 모기장 음악회, 석불사는 북콘서트와 사진가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자비선사, 축서사 등에서도 차명상과 걷기 프로그램 등 사찰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세부프로그램과 일정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가비, 세부 내용은 사찰별로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찰에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낙산사 여름 명물 템플스테이로 자리매김한 서핑 템플스테이.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